

## 강북신문 1면



박성열 의장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25일 육군 제2188부대를 방문해 일일 병영체험 행사를 가졌다.

### 강북구의회 의원단 일일 병영체험 행사 참여

25일, 서바이벌 사격 등 체험하며 국가안보 중요성느껴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직원 등 15명은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동안 육군 제2188부대 220보병연대 2대대를 방문해 일일 병영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번 병영체험 행사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국내안보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서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군부대를 찾아 몸소 병영훈련을 체험함으로써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처음으로 병영체험에 참가한 의원들은 전투장비 및 부대소개와 안보 동영상

상 시청이 끝난 후 사격훈련장에서 서바이벌 사격 등 현역장병들 못지않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병영체험을 마친 박성열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와 통합방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대화된 장비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서울포스트 4면

### 강북구의회 의원단 일일 병영체험 행사 참여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6명과 직원 등 15명이 육군 제2188부대 220보병연대 2대대를 방문했다.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6명과 직원 등 15명이 육군 제2188부대 220보병연대 2대대를 방문 지난 7월 25일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일일 병영체험 행사를 가졌다.

금번 병영체험 행사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국내안보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서 육군 제2188부대

220보병연대 2대대를 찾아 몸소 병영 훈련을 체험함으로써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안보의식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병영체험에 참가한 의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으며, 전투장비 및 부대소개와 안보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 자리를 이동하여 사격훈련장에서 서바이벌 사격 등 현역장병들 못지

않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병영체험을 통해 박성열 의장은 "그 어느때 보다 국가안보와 통합방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대화된 장비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강북구의원들 일일 병영체험 통해 안보관 확립

“그 어느때 보다 국가안보와 통합방위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느껴”

강북구의회 박성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직원 등 15명이 지난 7월 25일 오후 4시부터 육군 제 2188부대 220보병연대 2대대를 방문해 2시간 동안 일일 병영체험 행사를 가졌다.

금번 병영체험 행사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국내안보 환경이 중요한 시점에서 육군 부대를 찾아 몸소 병영훈련을 체험함으로써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안보관과 애국심 고취를 통해 국가 존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병영체험에 참가한 의원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으며, 전투장비 및 부대소개와 안보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 자리를 이동하여 사격훈련장에서 서바이벌 사격 등 현역장병들 못지않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병영체험에 나선 강북구의원들이 사격훈련에 앞서 부대원으로부터 총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병영 체험을 마친 박성열 의장은 “그 어느때 보다 국가안보와 통합방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대화된 장비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